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공조 共 ZONE

2016 SUMMER
VOL.042

'시흥동 슈바이처' 벨기에 할머니

반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다.
8,500km나 떨어진 벨기에에서 왔다.
의료 인생 40여 년,
한국땅에서 사랑의 인술을 펼치는
배현정 원장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SUMMER THEME

BEYOND DIFFERENCE

정책 가이드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로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펼치세요~!

INTERVIEW

"한국 전통 무술은 내가 지킨다!"
한국 무술과 사랑에 빠진
캐나다인 가이 에드워드 라크 씨

특집 난민 어울림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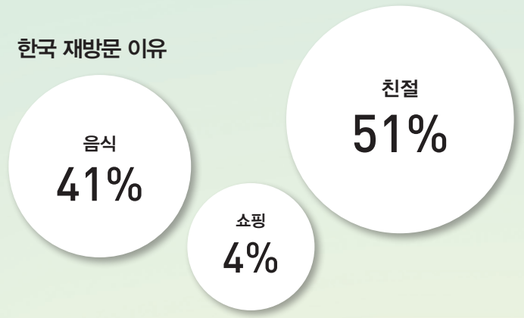
제16회 '세계 난민의 날' 현장 스케치
소통하고 화합하는 감동의 시간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한 그들의 속 마음은?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성숙한 글로벌 사회를 향해,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내외국민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보다 가까이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 한국이 낯선 외국인들의 마음 속을 살짝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고민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인포그래픽이 여기 있답니다. 서로의 다름을 더 잘 이해하여 더 깊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한번 살펴보세요. 정리 박지연

80% 외국인
"한국사람 친절해요"

한국 재방문 이유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5월 (재)한국방문위원회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한국인은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86%의 응답자는 '한국을 재방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친절이 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음식이 41%, 쇼핑은 4%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는 것은 소박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친절'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국어 배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발음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언어인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1위는 무엇일까요?
32%의 외국인들이 '발음'을 꼽았습니다. 이어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는 경어체 사용(26%), 회화 연습이 어려운 환경(21%), 한국어 학습을 위한 한자 공부(15%)가 각각 2,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출처: 비상교육 한국어 온라인 교육 사이트 마스터코리안. 마스터토픽 설문자료(2015)

집 갈 때 챙기는 음식
1위, 라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어떤 맛'에 빠졌을까요? 코스모진 관광 R&D 연구소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VIP 관광객 6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41%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의 '라면'을 가장 가져가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김(20%), 치맥(17%), 불고기(14%), 김치(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음식은 무엇일까요? 1위는 삼겹살 같은 한국식 바비큐(31%)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광장시장 빈대떡 등의 전통시장 음식(22%), 정통 한정식(21%), 한식 뷔페(17%), 동대문야시장 등 길거리 음식(9%)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떤가요? 한국인들도 일상에서 자주 먹고 좋아하는 음식이지요? 외국인들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는군요.

이색체험 NO.1
찜질방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느끼는 한국의 이색체험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코스모진 관광 R&D 연구소가 926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찜질방'이 1위(53%, 491명)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로는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드는 것이 재미있고, 안에서 안마도 받고, 치맥과 삼겹살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는 반응입니다.
이 외에도 한복체험(22%), 수제 도장 만들기(14%), 태권도체험(8%), 한국 전통놀이(3%)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수제 도장 만들기가 최근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신선하지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입니다!

We are living in Global Korea where every person grows harmoniously.

공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푸르른 에너지로 넘실대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거진 녹음과 한층 더 깊어진 바다는 넘치는 생명력과 기량을 한껏 뿜어냅니다.
매년 5월 20일 치뤄지는 '세계인의 날' 축제가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오늘날 성장동력인 '다양성'의 가치에 주목하고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의 비전을 알렸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이 제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차이를 넘어 가까이 다가가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 내에 항상 행복과 안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Greetings to all readers!
Summer season full of green has begun again without exception. Lush vegetation and ever-deepening sea give off overflowing fresh vitality.
This year marks the nin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 (May 20th)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osts diverse events to commemorate the day every year. Under the theme of this year's events, 'Vibrant Korea growing with immigrants', we focused on the value of 'diversity' which is a growth engine our society and introduced the vision of global Korea, growing with immigrants.
Furthermore, this year also marks the sixteenth anniversary of World Refugee Day (June 20th).
W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endeavor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everyone including refugees can grow in harmony.
Dear readers, I hope we can get closer to one another, going beyond differences, for making Korea better throughout this summer. May good luck and happiness surround your family.

Commissione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Woo-hyun 김우현

공존

2016 SUMMER VOL.042

벨기에에서 온 배현정 원장은 매주 목요일, 시흥동 골목길을 누빈다. 방문진료를 위한 걸음은 언제나 따뜻하다. 1975년 그녀는 '전진상 복지원'을 세웠고 의료봉사를 행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빛내고 있다.

제16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입주난민, 퇴소난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어우러져 내일의 희망을 격려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공존〉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계간 〈공존〉 2016 여름호 통권 제42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6년 7월 | **발행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쎄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CONTENTS

02 **Theme Info**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한 그들의 속 마음은?
04 **Editor's Message**
06 **공존人**
2014년도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 배현정 원장
"전진상 복지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08 **통암꿍과 김치찌개**
세계 3대 수프 통암꿍이 그립다면, 한국 김치찌개를 찾아라
10 **여행을 부탁해**
친구와 함께라면 '속초 여행'
16 **INTERVIEW**
"한국 전통 무술은 내가 지킨다!"
캐나다에서 온 가이 에드워드 라크 씨
20 **정책가이드**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로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펼치세요~!
24 **공존 PLACE**
활기찬 출입국 서비스를 책임지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28 **명장면 국어사전**
연애처럼 변화무쌍한 말 '재다'
30 **생활의 발견**
나라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의 성년 나이는 몇 살?
32 **사(史)적인 시간**
전장을 함께 누빈 형제나라, 한국과 콜롬비아
34 **출입국 Q&A**
행복한 여행길을 여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제 7세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36 **LIVING IN KOREA**
제9회 '세계인의 날'
생김새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죠!
40 **특집 | 난민어울림 마당**
제16회 '세계 난민의 날'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43 **LEARNING KOREA**
곡선에 깃든 은근하고도 온화한 한국의 멋
46 **전문가 기고**
반 이민정서의 확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48 **출입국 NEWS**
50 **앱북 이벤트 광고**
51 **Dear Friend**
왕려가 들려주는 여름별미 '냉면' 체험기

2014년도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 배현정 원장

"전·진·상복지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전진상'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국제 가톨릭 형제회의 모토 전(全)·진(眞)·상(常)을 말한다. 온전히 자아를 봉헌하여 어려운 이웃과 참다운 사랑을 나누고, 기쁨의 정신으로 세상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진상복지관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서 영세민들에게 무료 혹은 적은 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까지 도와준다. 이곳의 중심인 배현정 원장은 2014년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했다. 1975년부터 지금까지, 시흥동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김경주 사진 임정원

왕진가방을 든 푸른 눈의 의사

매주 목요일, 배현정 원장은 왕진가방을 들고 시흥동 골목을 누빈다. 의원까지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방문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미 유명인사다. 벨기에 사람인 배현정 원장은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국제가톨릭형제회의 일원이 되어 1972년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다.

한국생활과 한국에 점차 익숙해지고 나눔을 실천할 봉사단체를 정하기 위해 고민 하던 때였다. 어느 날 고 김수환 추기경이 국제가톨릭형제회에 찾아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 변두리 지역에 판자촌을 만들어 살고 있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당시 간호사였던 배현정 원장과 최소희 약사, 유송자 사회사업가는 이 문제에 공감했고 서울 판자촌 중 하나인 시흥동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시작된 전진상복지관은 무려 40년 동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영세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껏 돕고 있다.

배현정 원장(마리 헬렌 브라쇠르)은 1975년부터 '전진상 복지원'을 세우고 의료 봉사를 행하는 동시에 사회사업을 펼쳤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무료 공부방 운영, 장학금 전달, 가정 문제 해결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함께한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진상의원은 일반 의료 서비스와 함께 1988년부터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 2008년에는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어 입원 치료를 병행한다. 배현정 원장은 중앙대 의대로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된 후, 간호사 때부터 자주 마주쳤던 말기암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벨기에로 돌아가 호스피스 완화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돌아왔다. 말기암 환자들은 호스피스 전문팀의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전진상 식구들은 조를 이루어 24시간 출동한다.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치료 외에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배현정 원장은 강조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죠. 하지만 환자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며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요. 호스피스는 아주 인간적인 활동이에요."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도 큰 상실감에 빠진다. 전진상 의료진은 가족들의 불안함을 일일이 설명하고 다독인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모두가 함께 한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환자들도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이곳으로 오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지막에는 도리어 의료진을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진상의원에서, 가족들 곁에서 행복을 가득 안고 떠난다.

봉사의 시작은 남을 향한 작은 배려

"예전엔 농담 삼아 저를 외제 간호사이면서 한국 의사라고 말했죠. 의사자격증을 한국에서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온전히 한국사람이에요." 배현정 원장은 작년 초 특별귀화 자격으로 한국국적을 받았다. 이전에도 한국사람들을 한 식구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국가로부터 한국인으로 인정받아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 오르는 듯 그녀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눔을 실천해 온 배현정 원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봉사는 거창하지 않다.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지만 봉사라는 행위 자체는 항상 남을 위하고 남 중심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여긴다. "저를 흉내 낼 필요 절대 없어요. 제 삶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길일 뿐이에요. 각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남을 조금씩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봉사의 시작 아닐까요?"

전진상복지관을 운영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러나 동료들이 있었기에 잘 헤쳐 나왔고, 나쁜 일 뒤엔 좋은 일이 생겼다며 배현정 원장은 소탈하게 웃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돕는다면 못할 일이 없죠. 동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정말 힘들었을 거에요. 전진상 식구들, 감사합니다."

Tom Yam Kung

톰얌꿍

세계인의 혀를 매혹시킨 태국의 맛, 세계 3대 수프 '톰얌꿍'

인도산 생강, 코코넛 밀크 등의 향신료와 포르투갈의 매운 칠리, 중국의 냄비, 젓가락 문화 등이 혼합된 태국의 음식 문화는 독특한 색을 펼친다. 그 중 '톰얌꿍 Tom Yam Kung'은 태국을 대표하는 국물 요리다. 세계 3대 수프로 선정될 만큼 그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태국어로 톰얌꿍의 톰은 '끓이다'를 얌은 '새콤한 맛'을 그리고 꿍은 '새우'를 뜻한다. **톰얌꿍은 새우를 넣어 새콤하게 끓여낸 국물 요리라 할 수 있겠다.** 레몬그라스, 생강맛이 나는 갈랑가, 고추, 라임 잎, 코코넛 밀크, 피시소스 등의 다양한 향신 재료와 새우가 어우러진 이 요리는 온갖 풍미를 담았다. 매콤한 맛, 톡 쏘는 시큼한 맛, 단 맛, 짠 맛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오롯한 조화를 이루어 내는데, 마지막으로 고수까지 올려지면 그 강렬한 향이 톰얌꿍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킨다. 어디 맛뿐일까? 톰얌꿍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스태미나 음식으로 정평 나 있다. 레몬그라스는 위장의 가스 배출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도우며, 라임과 고추는 기침을 예방한다. 또한 고수는 소화를 도와 오장을 편하게 해주며, 강한 향은 모기의 접근까지 막아준다고 한다. 여름날의 보양식으로서 이보다 훌륭한 음식이 어디 있을까? 맛에 한번, 영양에 두 번 감탄할 수밖에 없는 톰얌꿍, 태국에 간다면 꼭 드셔보시길~!

다오가에우 파위니 (태국, 요리사)

마포동 서교동에서 태국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다오가에우 파위니입니다. '톰얌꿍'은 태국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기운이 없을 때 톰얌꿍을 먹으면 개운한 맛에 힘이 불끈 납니다. 건더기를 다 건져 먹은 후에는 야채나 쌀국수를 넣어 샤브샤브로도 많이 즐겨 먹습니다. 또 다른 태국 음식으로 향이 강하지 않고 달달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커리, 새콤 ·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는 볶음 쌀국수인 팟타이를 추천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Kimchi Jjigae

김치찌개

피로 날리고 활력 더하고! 시큼한 신김치로 끓여낸 김치찌개

시큼한 맛이 입맛을 당기는 또 하나의 음식, 김치찌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김치를 넣고 얼큰하고 새콤하게 끓여낸 찌개 요리다.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맛과 영양이 연출되는데 돼지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 등 기호에 따라 얼마든 새로운 요리를 창조할 수 있다. 조리법이 간단한 김치찌개는 대한민국 가정의 밥상을 책임지는 인기만점 국민 메뉴다. 기원은 고추가 김치의 조미료로 적극 쓰인 조선시대 후기부터라고 알려지며, 현재까지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묵으면 묵을수록, 삭히면 삭힐수록 좋은 식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김치다. 겨울철의 김장김치가 시간이 지나면 너무 시어져 그냥 먹기가 어려운데, 이때 각종 재료와 신김치를 함께 끓이면 신맛이 중화되면서 새콤한 찌개로 거듭난다. 새콤 매콤한 특유의 맛은 지친 입맛을 되찾아주고, 스트레스는 물론 피로 회복을 돕는다. 또한 김치 속 유산균 대사물질과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히 만든다. 이밖에 두부, 콩나물, 돼지고기 등 다양한 재료의 영양까지 더해지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더할 나위 없다. 어떤가? 톰양꿍과 비교해 맛에서도, 영양에서도 뒤지지않는 새콤한 별미, 김치찌개를 오늘 당신의 저녁 메뉴로 추천한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처음부터 물을 붓고 끓이면 김치가 물러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물을 붓기 전 기름을 조금 둘러 김치를 센 불에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먼저 볶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새콤한 김치의 맛을 잘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후 끓여낸 찌개의 간은 소금 대신 김치국물로 해 보세요~ 깊고 진한 김치찌개의 맛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불타는 여름, 친구와 함께~

떠나자! 속초로!

여름 바다는 진리다. 그리고 바다의 정석은 동해다. 짙푸른 수색과 청량한 바람은 여름날, 더위를 피하러 온 사람들에게 선선한 추억을 선물한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의 작은 도시 속초는 오밀조밀 모여있는 즐길 거리와 200% 만족하는 먹거리로 여행의 풍성함을 더했다. 가장 핫하다는 포켓몬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까지 하니, 이보다 설레며 이처럼 대세인 여행지가 또 어디 있을까? 지금 당장 떠나자.

글 박지연 사진 나우연

Please recommend

선심이(중국,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동성에서 온 선심이입니다. 현재 한국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도 벌써 6년 반이 흘러가네요. 저의 친한 고향 친구가 한국에 오면 동해 바다를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이 함께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동해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善申儿(中国，学生)_ 您好。我是来自于中国山东省的善申儿。今年2月读完韩国东国大学影像研究生院硕士后，在攻读博士课程。我来韩国已经有六年半了。如果故乡最要好的朋友来韩国的话，我一定要给他看东海。我希望今年夏天能和朋友一起享受凉爽的郊游。请推荐一下能观赏美丽风景和品尝美味料理的同时，可以编织快乐的回忆的东海旅游区。

Our recommendation!

선심이 씨와 친구 분을 위해 〈공존〉에서 추천하는 동해 여행지는 '속초'입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자가용으로 1시간 40분, 버스로 2시간 내외면 충분합니다. 속초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여 한 여름도 선선합니다. 무더운 기운을 단숨에 앗아버리는 짙푸른 바다의 풍경과 속초 명물 아바이 순대, 대게, 닭강정 등 먹을거리가 함께하는 속초는 최고의 여름 휴양지입니다. 선심이 씨~ 친구분과 즐거운 추억 듬뿍 담아오셔요.

<共存>为了善申儿和朋友推荐的东海旅游区是‘束草’。生活在首尔的善申儿到达束草的话，自驾车需要1小时40分钟，做大巴两个小时就足够。临着海的束草具有海洋性气候，所以夏天也比较凉爽。一下子夺走夏天炎热气候的深蓝色的大海美丽的风景和束草特产品老大爷血肠、大螃蟹、辣炸鸡丁等美味料理丰富的束草是最适合夏季旅游的避暑胜地。善申儿~ 希望能和朋友们一同编织快乐美好的回忆。

DAY 1

- 속초해변
- 아바이마을
- 속초 등대전망대
- 영금정
- 속초관광수산시장 (구 속초중앙시장)

눈부시게 파란 도시, 속초

속초 도착. 고속 버스를 타고 두 시간 반을 달려왔다. 짭짤한 바다 공기와 톡 쏘는 내음이 사방에서 여행객을 맞이한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500미터 거리에 있는 속초해변, 크지는 않지만 속초에 있는 유일한 해변으로 아담하고 깨끗한 바닷물이 인상적이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시원히, 청량감을 안기는 여름날의 바다는 보고만 있어도 온 몸이 새파랗게 물드는 기분이 든다. '저 섬은 뭘까?' 해변 넘어 조그맣게 자리한 무인도가 보인다. 사는 사람은 없지만 새가 많이 찾아오는 섬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조도. 하얀 암석과 그 위로 자라난 녹빛의 소나무, 그리고 파릇한 풀이 이루어낸 멋진 조화가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일출 때 보이는 조도의 광경은 속초의 8경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릴 만큼 장관을 이룬다고.

실향민의 터전, 바다 품에 안긴 아바이마을

속초 해변의 푸르름을 한 가득 안고서 다음 목적지인 아바이마을로 향하는 길, 빛 바랜 분홍빛깔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청호대교를 지나 드디어 갯배 선착장에 도착했다. 갯배는 쉽게 말해 속초 시내와 청호동 아바이마을 사이의 물길을 건너는 교통수단이다. 이 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동력선으로 갈고리로 철선을 당기면 이 철선에 연결된 갯배가 도르레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다. 줄을 빨리 당기라는 승무원 할아버지의 으름장에, 보고만 서있던 손님들이 하나 둘 갈고리를 움켜쥐고 철선을 당기기 시작한다. 어느덧 익숙해지는 동작 따라 어촌의 정취가 깊숙이 스며들어 온다.

2분 남짓 걸려 도착한 아바이마을, 팬들을 위한 배려일까? 제일 먼저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드라마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 등이 눈에 들어왔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세련된 멋은 없어도 어촌 특유의 정겨움과 투박함이 물씬 느껴졌다. 사실 이 곳은 슬픔이 담긴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이 그어지자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함경도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이곳, 청초호 해안 모래톱에 움집을 짓고 살게 된 것. 아바이마을의 '아바이' 역시 함경도 사투리 아버지에서 따온 이름인 것이다. 잔잔히 밀려드는 바다가 고향 잃은 그리움을 조금은 덜어내 주었을까? 악착같이 일해 속초의 상권을 살려낸 이들. 아바이순대, 함흥냉면, 가자미식혜 등을 만들어 먹으며 고향의 그리움을 달랜 이곳 주민들 덕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북의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아바이마을 갯배

이용 시간
오전 4시 30분 ~ 오후 11시
쉬는 날 연중무휴
이용 요금 200원

아바이순대

아바이순대는 돼지의 대창 속에 익힌 찹쌀밥, 선지, 숙주, 배춧잎 등으로 소를 만들어 쪄낸 함경도 지방의 향토 음식이다. 아버지를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가 의미하는 대로 크고 푸짐하여 주식 대용이 가능하다. 강원도에서는 돼지 창자 대신 오징어를 사용하여 오징어 순대를 즐겨 먹기도 한다.

산, 호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황홀하다. 규모가 넓지 않은 속초는 그 아담한 공간 안에 산과 바다와 호수를 모두 담았다. 이 세 쌍의 기묘하고도 잘 어우러지는 비경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 속초 등대전망대로 향한다. 내리 쬐는 태양과 조금 가파른 계단도, 이제 곧 눈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광경을 기대하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와~! 푸른 동해와 함께 설악산 대청봉과 울산바위 그리고 자연과 호흡하며 조화를 이루는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속초 8경 중 이곳이 제 1경이 된 이유에 대해 그 누가 탓할까.

아래로 영금정 정자가 내려다보인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면 신비한 음곡이 들리는데 마치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정자를 닮은 커다란 바위산 영금정은 일제 강점기, 골재 채취라는 이유로 폭파돼버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옛 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그 자리에 정자가 세워졌고, 이전 만은 못하지만 철썩이는 파도, 잔잔히 부서지는 파랑이 방문객들의 심금을 사로잡는다. 하나 더, 더 가까이 바다에 닿고 싶다면 56m 길이의 동명해교를 건너 해돋이정자를 꼭 한번 만나보기를. 바로 눈 앞으로 탁 트인 바다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질 것이다.

닭강정, 붉은 대게, 순대국밥… 여기 다 있네

속초의 음식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닭강정, 대게, 오징어 순대? 속초 유일의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구 속초중앙시장)에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맛볼 수 있다. 물론 시장을 벗어나서도 속초의 맛집은 많지만, 맛집을 검색할 여력이 안된다거나 가볍게 주전부리를 찾고 싶을 때 속초관광수산시장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가마솥에 튀겨내는 만석닭강정, 실향민들의 애환이 담긴 아바이순대, 함흥냉면, 명태양념회와 튼실한 붉은 대게부터 오징어 빵, 새우튀김 등의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각종 음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품목마다 전문화된 골목이 있으니 취향 대로 골라 가시길.

사람도 새도 넋을 잃고 바라보는 3000년 자연호수

속초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청초호와 영랑호 이 두 개의 자연호수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속초를 지키는 두 개의 눈동자, 이 자연 석호들은 퇴적물을 통해 1만년 간의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수 많은 철새들이 쉬었다 가는 휴식처로서 그 가치가 높다.

약 36만평 규모의 영랑호는 신라시대의 화랑 영랑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중요한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 조차 잊어버렸다는 영랑의 이야기에 송강 정철 등 수 많은 옛 문인들은 이 곳을 찾아와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특히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영랑호를 '구슬을 감춰 놓은 곳'이라 표했을 정도. 영랑호를 대표하는 범바위는 속초 8경 중 하나로 거대한 바위산이며, 멀리서 보면 범의 형상을 띄며 용맹을 떨친다. 10분을 올라와 널찍한 범바위에 걸쳐 앉아 바라보면 영랑호의 풍치가 참으로 호젓한 평화로움을 선사해 준다.

흥미진진 시간여행, 속초의 과거를 엿보다

"어서 오시라요!" 구수한 이북 사투리가 걸린 커다란 현판의 글귀와 함께 방문객을 정답게도 맞이하는 속초시립박물관. 이 곳은 속초 지방을 중심으로 관동이북 지방의 역사 자료와 생활상을 정리해 놓았다. 야외로 나오면 전쟁 전 평화로운 이북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 5도 가옥이 펼쳐진다. 흥미로운 점은 박물관이 폐장하면 이북 가옥에서 숙박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 박물관 건물과 이웃해 있는 실향민문화촌으로 오면 전란 후 5, 60년 대 속초의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현재는 철거된 속초역의 옛 모습은 물론, 물자가 없어 판자, 깡통, 종이박스를 구해다가 만든 작은 집에 여러 개의 단칸방을 이어 붙여 만든 공동주택 내부를 볼 수도 있다.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있는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의 애환과 삶이 더 가까이, 진실히 다가온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가 되면 속초시립풍물단의 멋진 풍악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간다면 기억해두자.

DAY 2

- 영랑호
- 속초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
- 척산족욕공원
- 엑스포공원

장사항

영금정의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장사항과 만난다. 크지 않은 항구이나 방파제와 모래사장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근처에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맛집들이 즐비하다. 매년 여름 개최되는 오징어맨손잡이축제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영랑호 스토리자전거

문화해설사가 운전하는 삼발자전거를 타고 영랑호 주변을 돌면서 영랑호의 전설과 속초시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약 50분 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기에 제격.

이용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A코스 영랑호 일주 10,000원
B코스 생태습지공원 경유 15,000원

학사평콩꽃마을순두부촌

실향민 문화촌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학사평콩꽃마을순두부촌. 이곳에는 약 80여개의 순두부 전문 식당이 모여있다. 속초는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하여 독특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순두부가 유명하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학사평 순두부축제가 열리는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척산족욕공원 이용

이용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 요금 무료
수건 및 방석 대여료 1,000원

여행길 피로가 싹~ 무료 족욕체험

슬슬, 여행의 피로가 몰려올 즈음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지는 순간. 여행객의 마음을 어찌나 잘 아는지 척산 마을의 한 자락, 족욕도 하고 삼림욕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척산족욕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척산온천휴양촌에서 30톤씩 무상으로 지원되는 질 좋고 따뜻한 온천수가 날마다 흘러내려온다. 이용료는 무료! 뜨끈한 물에 발을 담그니 온몸이 노곤히 풀리는 기분이다. 이것이 바로 여행의 참 맛, 여행객이 누리는 진정한 특권이 아닐까? 족욕공원 뒤편으로는 자생식물단지와 바람꽃마을을 연결하는 설악누리길이 조성되어 있다. 천천히 걸으며 친구와 도란도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하나 더한다.

빛과 호수가 자아내는 환상의 하모니

마지막 여행지는 속초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청초호 호수공원이다. 속초시의 중심을 이루는 둘레 5km의 청초호와 공원의 산책로가 함께 빚어내는 경관은 가히 으뜸이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와도 좋지만, 해진 후 선선한 호수 바람을 맞으며 야경을 감상하는 기분은 참으로 낭만적이다. 무려 74m나 되는 엑스포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빛과 호수의 물결이 자아내는 환상의 야경을 바라보며 여행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속초로의 두 번째 방문을 약속하며.

He is...

캐나다 출생, 한국생활 17년차.
어릴 적 헐리우드 배우 척 노리스의
액션 영화를 보고
동양 무술을 처음 접했다.
한국 전통 무술에 매력을 느낀 그는
2000년 무작정 한국땅을 밟았다.
태권도, 본국검, 합기도 등 다양한
한국 무술을 섭렵한 그는
한국 전통 무술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8년째 무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안동 찜닭, 삼계탕을 특별히 애정하는
Guy Edward Larke 씨에게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이다.
한국인 아내, 아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욱 이어나갈 한국 생활을,
무예 사랑을 응원한다.

Hello. I am Guy Edward Larke from Canada. I lov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It is so tragic that Korean people are not much interested in their traditional martial arts. It was very sad to see many studios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were closed. Therefore, I made up my mind to introduc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to the world. Currently, I have worked as a martial arts journalist for eleven years. My favorite Korean martial arts include Martial Arts for Korean Special Forces and Bongukgeum. Tradition is the heritage of mankind that should be maintained. I hope many people get to know and love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한국의 전통 무술은 내가 지킨다!"

한국 전통 무술에 매료된 사나이, 캐나다인 Guy Edward Larke 씨

글 **박지연** 사진 **이영균**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Guy Edward Larke입니다. 캐나다 사람이고요. 한국의 전통 무예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예 마케팅 & 비즈니스 컨설턴트, 무술 지도자, 세미나 강연, 무술 전문 잡지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무술 공부를 시작한지가 35년이나 됐네요. 태권도, 본국검, 합기도, 국술, 특공무술, 태껸, 우슈, 절권도 등 많은 무술을 공부했습니다. 음… 총 48단이 되네요.(웃음)

동양 무술을 처음 접한 때는요?

1970년이었어요. 무술 영화의 황금기였어요. 척 노리스, 브루스 리(이소룡)처럼 무술을 겸비한 배우들이 아주 유명했죠. 슈퍼맨이나 헐크처럼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베트맨처럼 보통의 인간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 무술을 펼친다는 점이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그때부터 중국 무술, 일본 무술 등 동양 무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국에 와야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88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채택 되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태권도를 알게 되었어요. 때마침 한국의 태권도를 배경으로 한 'Best of best'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죠. 1990년, 대학생 때인데 캐나다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처음 방문했어요. 이후로 한국 전통 무술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무술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과거 삼국시대 화랑도의 본국검을 접하게 되었고요. 첫 느낌이 굉장히 놀랍고도 낭만적이었어요. 한국에 오면 이러한 전통 무술을 더 많이 알고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한국 전통 무술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중국 무술, 일본 무술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 무술만의 매력이 있는데요. 일본 무술은 굉장히 선이 직선적이고요, 중국 무술은 형태가 살아있는데, 동물의 형태를 띈다거나 선이 곡선적이라 할 수 있어요. 한국 무술은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 있어요. 곡선처럼 유연히 절제를 하면서도 적재적소에 힘을 발휘하죠.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특별히 애정이 가는 무술이 있나요?

특공무술과 본국검이요. 특공무술은 여러 무술들의 장점을 받아들인 무술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에요. 이에 반해 본국검은 고조선 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된 전통 깊은 무예입니다. 조선 정조 시대 때 편찬된 무예도보통지를 보면 본국검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본국검을 들고 있으면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전사가 된 기분이랄까요? 검과 제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죠. 본국검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는 훌륭한 유산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무술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태껸의 동작을 보면서 우스꽝스럽다고들 해요. 절대 우스운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많은 무술 도장이 경제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은 인류가 꼭 지켜야만 하는 값진 선물입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 역시 인류의 훌륭한 문화 유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관심을 갖는다면 무예를 전승하는 도장 환경이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무술잡지, 태권도타임즈에 칼럼을 매번 연재하고 있어요. 대한당수도협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편집도 도맡으며 한국의 전통 무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이러한 무술이 있나요?

네, 유럽 르네상스 검술이 계승되고 있어요. 처음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다 보면 내 나라를 이전보다 새롭게, 더 잘 알게 되듯이 한국의 전통 무술을 알고 배우면서 유럽의 전통 무술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시야가 넓어진 거죠.

한국 적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한국 생활 초반기에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많이 낯설어 했어요. 물론 제가 다니던 도장은 예외지만요. 외국인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사람들과 어울려 한국의 문화를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한국인과 저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많아져 서인지 분위기가 훨씬 자유롭고 관대해졌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기억이 있다면?

과거엔 한번 방문하면 거의 하루를 소비해야 할 정도로 오랜 시간 대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분위기도 딱딱해서 마치 학창 시절, 잘못을 저질러서 교무실에 불려가는 학생이 된 듯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15분이면 업무도 금방 처리되고, 직원들도 상냥하고 친절해졌어요.

부인은 어떻게 만났나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영어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곳의 수강생 중 한 명이 부인을 소개해 줬어요. 한 번 만나보라면서요. 이후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지내고 있네요.(웃음)

고향 캐나다가 그립지 않은가요?

그리움의 대상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부인과 아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있으니 한국은 제 고향이나 다름없죠. 제 가족들, 캐나다의 친구들과는 종종 온라인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립다는 감정이 딱히 들지는 않아요.

한국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독특한 역사, 경주, 경복궁, 절… 정말 많은데 한국 음식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안동 찜닭, 삼계탕, 육개장, 감자탕, 막창, 곱창 정말 사랑해요. 제 입맛에 딱이에요.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전통 무술을 꾸준히 연마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통 무술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고, 교본 번역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His choice

Guy Edward Larke 씨가 추천하는

캐나다 최고의 축제 Calgary Stampede

캘거리 스탬피드

매년 7월, 캘거리 남쪽에 위치한 스탬피드 공원에서 10일 동안 로데오 축제가 열린답니다. 카우보이 출신인 가이 웨딕이 캘거리를 알리기 위해 카우보이 축제를 시작한 것이 시초에요. 로데오 경기는 물론 역마차 경주, 카우보이 체험, 콘서트,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공원 곳곳에서 펼쳐져요. 컨트리 뮤직, 맛있는 먹거리도 함께 하고요. 공원 외에도 캘거리 전역에서, 심지어 공공기관에서까지 카우보이 모자와 부츠로 한껏 장식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독특하죠? 서부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색다른 체험,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세계적인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를 꼭 한번 즐겨보세요~!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로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펼치세요~!

Fulfill your dream with a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꿈과 소망을 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적, 인종, 종교 등 지역적,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 넘고 과감히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려움 없이 그리고 보다 당당하게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를 통해 다양한 혜택도 누리고 꿈도 마음껏 펼쳐보세요!

International students with hopes and dreams boldly decided to come to Korea, overcoming regional or cultural differences, including nationalities, races and religions. The number of them is steadily increasing. Against the backdrop,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ade a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to help them to achieve their dreams in Korea. International students, enjoy the benefits of the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and pursue your dream!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점수제를 통한 거주자격(F-2-7) 변경

국내 대학 유학경험자가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변경 시 취득학위에 따라 박사(5점), 석사(4점), 학사(3점), 전문학사(2점), 한국어연수(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Change to F-2-7 (Point system based residential status)

If an international student changes his/her residential status to F-2-7 (Point system based residential status), he/she gets points according to the type of degree he/she earned (doctoral degree: 5 points, master's degree: 4 points, bachelor's degree: 3 points, college degree: 2 points, Korean language training: 1 point)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소개합니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열중하는 데에는 남모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 · 석사 등 정규 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더 남아있고 싶어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귀국을 하거나 제 3국행을 택하고 말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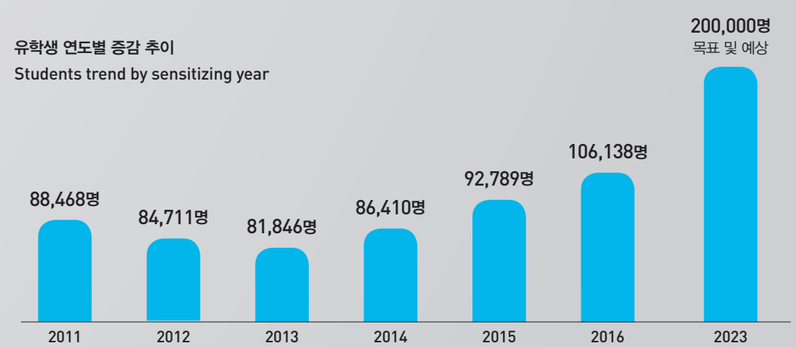
그래서 신설된 것이 바로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입니다.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는 이름 그대로 일(취업)과 학습을 연계하는 유학비자를 뜻합니다. 이를 취득한,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et me introduce a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The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a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coming to Korea. They had experienced inconveniences, disturbing their studying. Particularly, since student visas had been issued to those planning to take regular academic courses for attaining bachelor's degrees or master's degrees, demands of students coming to Korea to take other courses had not been fully accommodated. Moreover, talented international students had been having difficulty obtaining work or residence permits. Accordingly, international students intending to stay in Korea reluctantly had been going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or choosing to go to third countries.

Due to these reason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ade a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this visa and being selected as a scholarship student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KGSP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can get a job he/she wants in Korea, immediately after his/her graduation.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Students trend by sensitizing year



Yr 2023: Aims and expected to be 200,000 persons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게 국민고용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2년씩 취업(E-7)을 허용하였는데요. 일 · 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에 3년씩 비자를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유학생들이 거주비자, 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혜택을 주기로 하였는데요. 우선 거주비자로 변경할 때 모든 유학생들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 · 학습연계 소지자에게는 1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소득)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 · 학습연계 소지자는 이를 면제하였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 10점을 이들에게는 2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What advantages can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gains?

Let's check what advantages are offered to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As mentioned earlier, he/she can apply for a position he/she wants right after their graduation. Moreover, in the past, E-7 (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visa , valid for two years, had been issued to an international student. With the visa, he/she could work for a company hiring more than five Korean nationals to the maximum of 20% of Korean national employment rate. Now, when an international student on a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makes an employment contract with a company, the company is exempted from the rule related to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rate and the validity period of a work permit granted to a hired international student is extended to three years. A range of benefits are offered to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this type of visa when he/she applies for a residence permit or a permanent residence permit. Previously, fewer than five additional points had been given to an international student applying for a residence permit. Now, he/she gets ten additional points. When he/she applies for a permanent residence permit, there is not any limit on yearly income unlike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 general student visa whose yearly income shall be over GNI (Gross National Income). Besides, twenty additional points are offered to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 student visa connecting work and study, whereas ten additional points are given to an international student on a general student visa.

석 · 박사과정 유학생은 주목~!

인증대학 석 · 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여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자포털 (www.visa.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비자발급이 이뤄져 여권을 가지고 곧바로 국내 입국이 가능합니다.

Attention! international students in master's or doctoral courses

By issuing e-Visas to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candidates for master's or doctoral degrees of certified universitie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mized inconvenience such as visiting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several times to obtain student visas. If an international student apply for an e-Visa online at home or workplace via Visa Portal website (www.visa.go.kr), a visa is issued online so that he/she can enter Korea with his/her passport.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심사를 미리 완료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하면, 재외공관에서는 불필요한 추가심사 없이 곧바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If a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issues a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after carrying out an inspection procedure, a visa can be issued without unnecessarily excessive inspection.

이밖에 더욱 친절하게 달라진 유학비자 제도

한류의 영향 등으로 외국 대학 재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잠깐 휴학하거나 또는 방학기간을 빌려 한국에 찾아와 국내 대학에서 단기간 유학 생활을 하며 문화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 이들은 관광비자로 출, 입국을 반복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유학(D-2-8)비자가 신설되었습니다. 단기유학비자를 취득하면 정규 학위과정 외에도 계절학기나 1~2학기의 짧은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단기유학 후 정규과정 유학을 원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곧바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그 동안 유학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공관별로 심사를 위해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불편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불법체류율 1% 미만의 우수 인증대학 유학생이라면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기존과 같이 재외공관에서 신청해도 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비자발급이 기대되시죠?

마지막으로 대학은 지금까지 재학(연수)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제적, 휴학, 유학(연수)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동포 · 결혼이민 · 거주비자 등 별도의 허가 없이 국내 유학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학의 각종 신고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더욱 친절히 개선된 유학비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이를 넘어 한국을 택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아낌없이 응원합니다.

Student visa system becomes even friendlier

Nowadays, a great number of foreign university students taking breaks or vacations study at Korean universities for a brief period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because of Korean wave. So far, they had experienced inconvenience, repeating departure and entry with tourist visas. To address this problem, we made a short-term study visa (D-2-8). Regardless of the period of the academic course he/she takes, an international student can obtain this visa . Furthermore, he/she can easily change their visa types in Korea if he/she wants to enroll in a regular course after completing a short-term course. In addition, he/she could apply for a student visa at a diplomatic mission in Korea. Sometimes they had asked him/her to meet excessive document requirements or issue a visa slowly, which caused considerable inconvenience for him/her. But, from now on, if he/she studies at a certified university having less than 1% of rate of illegal residents, they can either apply for a visa at a diplomatic mission or get a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after a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conducts pre-screening. You must be looking forward to getting a visa quickly. Lastly, related universities had been obligated to notify competent immigration offices of expulsions, leaves of absence or completion of courses of all international students. But, from now on, regardi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can study in Korea without separate visas, including overseas Korean visa, spouse of a Korean national visa or residence permit, such obligation does not exist.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new type of visa?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expects more talented international students to study at Korean universities by taking advantage of improved policy on student visa. We unsparingly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who take the plunge choosing to study in Korea surpassing differences.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활기찬 출입국 서비스 우리가 책임집니다

온화한 기후 탓일까?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했다. 사무실 내는 많은 민원인들로 꽉 들어차 있었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직원들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보다는 고충을 지닌 외국인 민원인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에게로 먼저 향했다. 상대의 어려움을 세심히 귀담아 듣는 마음씨, 문제를 더불어 해결하고 즐거운 기운을 선사하는 밝은 미소는 미원인들의 마음 한 켠을 편안히 만들었다. 가슴으로 전달되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품격,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글 박지연 사진 임정원

울산의 품격과 얼굴을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제1의 산업도시이자 동해안 최대 항구도시인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대로 지정된 이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 조선, 자동차, 화학분야의 공장이 다수 들어서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북아 오일 허브의 중심지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힘찬 도시 울산, 이곳을 찾는 외국인의 수는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공장이 많다 보니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등을 포함해 현재 약 3만 5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울산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들이 울산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체류 허가,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일을 해결하지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2012년 3월 3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이던 울산출장소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습니다. 약 50년만에 선박심사만 관할하던 출장소에서 외국인 관련의 전반 업무를 관할하는 사무소로 승격된 것이죠.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외에 경상북도 경주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승격 전 울산,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사무소 또는 부산사무소로 가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총 22명의 사무소 직원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안전한 정착과 적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루 평균 150여 건의 민원 처리는 물론 성수기 때에는 200건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선박감독관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사무소를 찾고 있는데요, 관할 구역의 확대로 체류관련 업무량이 30%나 증가했음에도 직원들의 얼굴은 언제나 맑음입니다. 이들의 환한 에너지는 외국인들이 울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품격, 대한민국의 얼굴을 책임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울산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카리스마가 참 든든해 보였답니다.

민원인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상 3층 규모로 이루어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오전 9시가 되기도 전부터 민원 업무를 처리하러 온 외국인들이 바깥에서 하나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행정팀장 정금심 계장님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출입국 사무소를 둘러보았습니다. 1층은 통합민원실입니다. 체류, 사증, 국적, 난민, 재증명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지요. 한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수 많은 민원인들로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체류카운터는 직원을 보강하였다고 합니다. 야광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 한 분이

눈에 띕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11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민원인들의 수월한 업무 처리를 친절히 돕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행정지원실과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지원센터 등이 자리해 있었는데요. 사무소는 포용적인 이민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제도와 풍습을 이해하는 과정인 사회통합교육,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초기 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사무소 한 켠을 보니 수유실과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대기시간이 길어 힘들 민원인과 어린 자녀를 향한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3층은 심사과입니다. 외국인이 날로 늘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에 대한 제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불법체류자 단속, 사범 처리, 불법 체류 예방 계도 활동, 체류외국인에 대한 동향과 실태를 조사하는 심사과의 역할이 더욱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단속팀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 사무소인 부산, 대구, 창원 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단속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그들은 한 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는 답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모두 울산 FAMILY

차를 타고 15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항만분소입니다. 최근 항만으로의 밀입국 사건이 종종 발생되면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무소 승격 전 울산 출장소가 있던 그 자리에, 항만 분소가 작년 9월 신축되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널따란 창과 새로 지어 더욱 쾌적하고 깔끔한 분위기 속에 항만분소는 지상 2층 규모로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의 직원은 달랑 셋입니다. 그것도 교대 업무라 2인 1조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담한 규모와 다르게 업무의 중요도는 매우 큰데요, 선원상륙허가를 비롯해 국내 조선업을 이끌어가는 울산을 찾는 많은 선박에 대한 심사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 목적으로 입항하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크루즈선의 심사 업무를 맡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요주의선박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밀입국시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냥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았던 조혜라 반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긴장감이 살짝 맴돌았습니다.

울산 사무소의 직원들은 유독 친근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형, 누나, 동생 같은 마음으로 바쁜 업무 중 서로 한번 웃어가며, 지치지 않는 기운을 민원인들에게 전파하는 행복한 울산 FAMILLY. 이들의 밝은 에너지 덕에 울산의, 대한민국의 얼굴이 나날이 빛날 것이라는 믿음을 한아름 받아갑니다.

Mini Interview

"한국말 못하는 민원인 여러분~ 아광조끼를 찾으세요"

최일레나 (러시아)

안녕하세요. 최일레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권 민원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2년이 되어 가네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어요. 가끔 고맙다는 인사로 민원인들에게 초콜릿 같은 것을 받기도 해요. 이밖에 출입국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로도 1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제 본업은 부산외대 교육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욱~ 한국과 함께 할게요.

아침 9시 문을 열기도 전부터 먼 거리(경주)에서 달려와 체류카운터 출입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볼 때면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어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민원인과 저, 서로에게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체류과 9급 박지영 반장

본소와 떨어져 근무하는 관계로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들지만 일당백 선박팀 3명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울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신속한 상륙허가 처리로 국가경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겠습니다.

항만분서 선박팀 9급 조혜라 반장

관할 지역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저희는 인근 사무소인 부산, 대구, 창원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단속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긴장을 풀지 않도록, 외국인의 인권과 안전한 계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심사과 단속반 이기욱, 박판현 반장

임용 전 수습을 울산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 동안 업무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와 소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첫 사무소의 추억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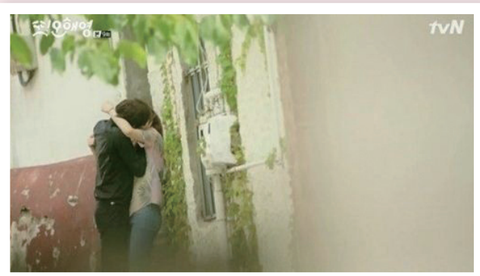
행정지원팀 박서연 수습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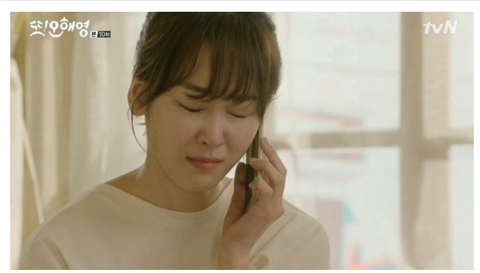
연애처럼 변화무쌍한 말 '재다'

남과 비교당하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잘나가는 동명이인과 매번 비교당하는 불행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또! 오해영〉의 주인공 '오해영'.
〈또! 오해영〉은 특별히 예쁘지도,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평범한 여자가 연애를 하며 겪는 우여곡절을 가슴 아프지만 유쾌하게 그려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외국어가 느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연애'라고 하죠.
연애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로맨스 드라마 한 편 보는 건 어떨까요?

글 **김경주** 사진 **tvN**

결혼식 전날 파혼 당한 오해영(서현진)은 까칠한 음향감독 박도경(에릭)을 만나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박도경은 자신의 오해로 오해영의 결혼식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던 중 박도경은 전 약혼자를 다시 만나는 오해영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맙니다. 키스 사건 이후 박도경이 연락을 하지 않아 애가 타는 오해영. 한참 만에 그의 전화가 걸려왔고, 화가 난 그녀는 소리칩니다.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직도 재니?"





'재다'라는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자로 책상의 길이를 재다'와 같이 '사람이 길이나 너비 따위의 수치를 측정하여 알아본다'는 의미로 쓰인 문장을 가장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재다'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해영이 박도경에게 물었던 "아직도 재니?"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의 '재다'는 여러모로 따져보고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오해영은 분명히 자신에게 호감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길 망설이는 박도경에게 아직도 사귈지 말지 고민하는 거냐며 물어보는 것이지요. 꼭 연애관계가 아니라도 '일을 너무 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떤 사람인지 잘 재어보고 결혼해' 등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애를 하고 싶은 상대방이 주저한다면 말해보세요. '언제까지 잴 거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뜻을 가진 '재다'의 쓰임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잘난척하며 으스대거나 뽐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너무 재지마'라고 쓰이죠. 두 번째, 참을성이 모자라 입놀림이 가벼운 사람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쟤는 입이 재서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둘 때 '옷장에 옷들을 재어 놓았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확장되어 음식을 만들 때 '재다'가 활용됩니다. 바로 음식에 간이 배도록 양념을 할 때 입니다. '불고기를 만들려고 쇠고기를 양념에 재어 놓았어'라고 말하죠. '재다'의 의미가 너무 달라져 놀라셨죠? 하지만 단어의 쓰임새가 많고 재미있는 한국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한국어에 매력을 느끼게 되실 거에요.

아직도 재니?
和恋爱一样变化无双的韩国语'재다'

请想一想可以使用'재다'的句子。大部分的人会容易想起'用尺子量桌子的长度'等的人测量长度或宽度等数值等的句子。但'재다'这个单词在日常生活中还使用为各种各样的意义。吴海英问朴道京"还在量这量那吗"，这是什么意思呢？此时的'量(재다) 具有在多方面衡量和猜测的意思。朴道京分明是对吴海英有好感，但还是有些犹豫。于是吴海英是在问朴道京是不是还没有想好要不要和自己恋爱。除了恋爱关系以外，还能使用为'过于量这量那就什么也做不了'、'要好好衡量(재다)对方是什么样的人后结婚'等等。如果要想恋爱的对方有些犹豫的话，就可以问对方'你要衡量到什么时候？'

现在我们了解一下意思完全不同的'재다(摆架子，嘴快，整齐叠好)'的用法。第一，具有爱摆架子和装模作样的意思。举个例子的话就是'不要因为有钱就摆架子'。第二，指耐心不足而嘴快的人时使用，比如是'他嘴太快，什么都不敢和他说'。第三，东西整整齐齐地叠在一起时使用，比如'衣服整齐叠了后放在衣橱里面'。还有，做料理时也使用这个单词，就是为了做料理而抹调料。比如'为了做烤牛肉，给牛肉涂了调料(재다)'。如此'재다'的意义非常不同，是不是有些感到惊奇？但，如果熟悉了这种单词的应用方式多和有趣的韩国语的话，会很快能感受到韩国语的魅力。

중국에서 온 새내기 홍옥 씨는 생애 두 번째로 맞이한 '성년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 선배들에게 축하의 장미 다발을, 남자친구로부터는 고백도 받은 날이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과 한국의 법적인 성년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중국에서 성년식을 한 번 치렀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들의 환대 속에 따뜻했던, 두 번째 성년식을 맞이한 것이죠. 이렇듯, 나라마다 성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흥미롭지 않은가요? 나라마다 다른 성년 나이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Miss Hongok, freshman from China, cannot forget the second 'coming-of-age celebration' in her entire life. This is because it was the day when she received a bouquet of roses from older students at university and her boy friend declared his love to her. In fact, the legal age of majority is different between China and Korea. So, a coming-of-age celebration has been already held for her in China. And the second coming-of-age celebration was held, which was heartwarming, as her friends extended warmhearted hospitality to her. In this way, an age that becomes criteria for adulthood is a little bit different in each country. Isn't it interesting? Now, I would like to start my presentation of age of majority different in each country. 정리 박지연

나라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의 성년 나이는 몇 살?

만 19세, 진짜 어른이 되는 나이

대한민국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루 빨리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만 19세가 되면 다양한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우선 선거권이 부여돼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으며, 귀화 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음주와 흡연 등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도 할 수 있게 되지만,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세가 먼저겠지요?

한편, 법률마다 법적 나이가 달라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면 청소년 관람불가에서 해방이 되어 모든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며, 9급 공무원 시험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15세도 성년이라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성년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한국 나이로 만 18세를, 일본은 만 20세를 성년 기준 나이로 정해 놓았습니다. 단 일본의 경우 국왕, 왕세자, 왕세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답게 주마다 성년의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18세 생일이 지나면 성년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각 국가마다 성년의 나이가 다른데요. 네덜란드는 23세로 특히 높으며,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지능과 정신연령을 측정해 통과한 사람에 한해 18세부터 성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요? 프랑스에서는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5세가 되면 독립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멕시코 등 남미에서는 15세, 베트남은 16세, 북한은 17세가 된 사람들을 성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에 승려생활까지 나라마다 다른 성년식 풍습

한국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여 만 19세, 성년이 된 구성원들에게 축하의 격려와 장미꽃, 향수 등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5월 19일을 성년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붉은 종이를 하늘 위로 날리며 성년이 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치른 후, 성년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는다고 하네요. 일본의 경우 1월 둘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며, 국가지정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이 날의 주인공들은 여성은 화려한 기모노를, 남성은 정장이나 전통 하카마를 입고서 신궁 등에 참석해 성대한 행사를 치릅니다. 재미난 것은 부모가 아들에게는 지갑을, 딸에게는 핸드백을 선물하는데 그 안에는 재물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1만엔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미얀마에서는 만 12~13세의 나이에 각각 왕자 옷, 공주 옷을 입고 화려한 공간에서 악사들에게 축가를 선물받습니다. 특히 소년들은 성년식 후 절에 들어가 2주 간의 승려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미국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선거권을 새로이 부여 받은 성년들을 축하하고 그에 맞는 책임 의식을 가르칩니다. 영국은 18세 생일에 부모로부터 열쇠마크가 새겨진 카드를 받는데, 이는 몇시에 귀가해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좋으니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뜻이랍니다. 이 밖에 뉴질랜드는 원주민으로부터 유래된 성년의 담력을 뽐내는 번지점프를, 호주는 무도회를 엽니다. 멕시코의 경우 여자아이가 15세가 되는 날 성년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는데, 성당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밤새도록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과연 축제의 나라 멕시코답지요?

전장을 함께 누빈 형제나라, 한국과 콜롬비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작은 나라에 선뜻 도움의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다. 그 고마운 손길을 내어준 나라가 바로 중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이다. 비록 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두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더 단단히 맺어졌다.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찬찬히 알아보자.

글 김경주

이름도 모르는 타국을 도와준 용맹한 참전용사들

1950년 6월 25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국전쟁이 터졌고, UN은 한국에 지원군을 급히 파견했다. UN군 안에는 그 동안 한국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콜롬비아의 군대가 있었다. 콜롬비아는 자국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1년부터 종전까지 3척의 호위함과 육군과 해군 전투병 5천여 명을 동쪽의 작은 나라로 보낸 것이다.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불모고지전투, 콜롬비아 군이 승리했던 금성지구전투를 수행하며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용사들. 그들은 참전국 중 가장 군기가 엄하고 용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전장을 누비며 피를 흘렸던 한국과 콜롬비아는 그렇게 혈맹의 관계를 맺었다.

휴전 후 한국정부는 콜롬비아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1973년 전사한 콜롬비아 장병 213명의 이름을 세긴 석가탑을 제작하여 선물한 것. 현재 이 석가탑은 콜롬비아 국방대 내에 위치하여 이름도 몰랐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콜롬비아 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가 출국한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1975년 기념비를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였다. '콜롬비아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인근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이렇게 두 나라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가슴 속에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출처 :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이제, 한국이 도와줄 차례입니다

〈한국-콜롬비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우호회관 건립 기공식〉, 출처 : 국방부

피로 맺어진 한국은 콜롬비아 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형제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으니. 그러나 콜롬비아는 50년간의 내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국전쟁에서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한국은 콜롬비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기술,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봉사단을 파견하고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해 전달하며, 콜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참전용사 후손을 채용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도움에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회는 한국과 자국의 기업이 경제적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문화사절단을 보내 한국의 영화, 무용,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K-POP이 전세계의 인기를 얻게 되면서 콜롬비아도 한국 가요의 매력에 푹 빠졌다. 작년 8월에는 K-POP World Festival을 개최해 재능 있는 콜롬비아 젊은이들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뽐냈다.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커피, 콜롬비아 산이라고!

콜롬비아는 생각보다 더, 한국 생활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기호품이 된 원두 커피. 그 많은 원두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콜롬비아는 세계 3위의 커피 수출국이고 베트남, 브라질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주요 커피 수입국이다. 오늘 업무에 지친 당신이 마신 그 커피가 바로 콜롬비아 산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콜롬비아 산 원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에게 콜롬비아는 그리 먼 나라가 아니다.

1962년 3월부터 국교를 수립한 두 나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콜롬비아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원한다. 한국 역시 동일한 마음이다. 최근 콜롬비아는 한국을 아시아 최초 FTA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에 진출해 있고, 한국은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국에 포함되어 있다. 몇 년에 걸친 협상 끝에 한국-콜롬비아 FTA는 올해 7월 15일 발효되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 지길,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로 돌아오길 바라본다.

행복한 여행길을 여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제 7세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Begin your happy journeys with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now available for ages 7 and up

일러스트 **강주연** 자료제공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존〉 편집실(theseven@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Q 가족끼리 해외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전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요. 집에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많이 멉니다. 일찍 집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공항 도착 후 출국 심사까지 계산하면, 비행기 탑승 전까지 시간이 매우 빠듯할 듯합니다. 출국 심사 대기 줄에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갑갑하네요.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I'm planning to travel overseas with my family and our flight is scheduled to be in the morning. One thing I am concerned is that the airport is a bit far from where we live. However early we leave the house, I am worried we would barely make it in time for boarding because of the long waiting lines for immigration clearance. Do you have any good recommend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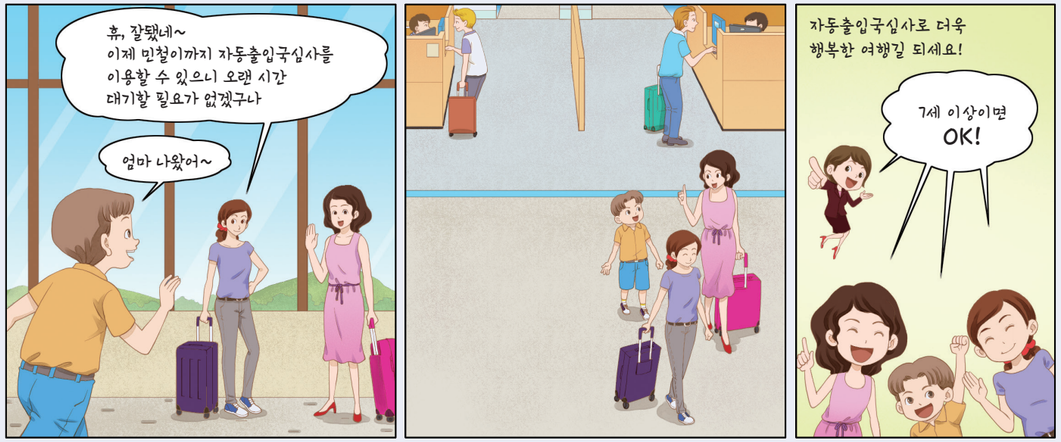
A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자동화 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이 현행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동안 14세 미만의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 덕에 주민등록상 7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과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에 있어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동의절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 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 등록을 하여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그 이용 대상을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들의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our problem can be solved by using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where you only need to scan your passport and fingerprints at the auto gates. If so, you don't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for the face-to-face inspection. Moreover, The eligibility for using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of Korea has been expanded. The minimum age requirement for using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has been lowered from age 14 to 7 and above.

Until now, children under 14 years old had to go through the face-to-face inspection because they were not eligible to use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Thanks to the amendments, Korean nationals who are registered to be ages 7 years old and above can all enjoy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However, please note that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parents) is required for children between ages 7 years old and under 14. Now, families traveling with young children can enjoy immigration clearance more conveniently!

In addition, those who are between ages 14 and 17 no longer need parental consent to use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from now on. Along with that,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where only certain registered foreigners, such as overseas Koreans and marriage migrants, were eligible in the past, will now be available to all registered foreigners 17 years old and above.** This is expected to bring out dramatic increase in convenience of oversea travel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제9회 '세계인의 날'

생김새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죠!

모이니 즐겁다. 지구촌 각지에서 온 세계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1년에 한 번, 5월 20일이 되면 매년 축제가 벌어진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세계인의 날 축제, 올해로 벌써 9회째다.
참가한 모두가 특별한 주인공이 되는 화합의 현장.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또 다채롭게 꾸려진 기념 행사를 함께 즐기며
너, 나, 우리는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글 박지연 사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나우연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이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매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실제로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5월 20일, 유난히 화창했던 날씨는 제9회 세계인의 날 축제를 찾은 참가자들의 미소를 더욱 맑게 비췄다. 재한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고충과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줄 고충상담 부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이벤트, 인기 가수들의 기념 무대 등 알맞게 꾸려진 축제 한마당을 모두가 함께 즐겼다. 눈도, 귀도, 마음도 즐거운 이 곳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향해

제9회를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펼쳐졌다. 중세 고딕양식 건축의 진수를 자랑하는 평화의 전당 앞에서 세계인들은 찰칵, 셔터를 누르기 바쁘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 곳곳에 보였는데, 새 시대의 성장동력인 창조와 혁신, 그리하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다양성'의 가치에 주목하고 세계인과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미래상을 담아내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국회 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련 정부인사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미첼 이디아케스 바라닷 주한 온두라스대사 등 33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함께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웅 장관은 "지금 우리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약 200만 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외국인의 입국 · 체류 · 정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으로 든든한 믿음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연이은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유공자 포상과 공모전 시상이 진행되었다. 먼저 이민자 단체 '물방울 나눔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자들의 자립에 크게 기여한 와타나베 미카 씨가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 국적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들에게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이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 · 사진 공모전'이 이어졌는데 자신의 한국 생활기를 진솔히 담아내어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재한외국인 총 15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모두가 기다렸던 시간! 축하 무대공연이 이어졌다.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이사장 인순이 씨,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포미닛, 미디어아트 등 화려한 축하무대는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민속옷을 입고 참석한 각국의 세계인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졌던 흥나는 객석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로비와 야외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로비에서는 공모전 수상작, 출품작 전시와 세계인의 날 연혁 전시가 열렸으며, 야외로 나가면 정보부스, 체험부스, 포토존 등 세계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이벤트 부스가 세계인의 즐거운 발길을 붙잡았다. 화려한 색감과 이색적인 모양새의 각국 전통의상 체험도, 인도 전통문양 헤나 체험도, 곳곳에서 펼쳐지는 경품행사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게 없었다. 세계인은 즐거운 체험을 통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며 서로에게 한 발 다가갔다. 모두가 어우러져 서로를 품었던 화합의 날. 이 날의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채로운 색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보다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외국인 특구 안산 축제장으로 go go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느 곳일까? 올해 3월 기준으로 87개국 7만 4천여 명의 외국인이 모여있는 안산시다. 안산시는 지난 5월 22일,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지원본부 야외무대 일원에서 세계인의 날 축제를 개최했다. 뜨거운 태양쯤은 겁나지 않는다, 수 많은 외국인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너랑 나랑 우리 함께'라는 주제 아래 '안산시 시 승격 30주년'까지 맞물려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총 1,500여 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유소년 사생대회, 국가별 전통의상을 입고 펼쳐진 화려한 퍼레이드, 태권도와 전통 씨름대회, 지구촌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베트남 결혼이민가정을 위한 전통 혼례식 등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가는 곳 마다 즐거움의 연속이었던 체험 부스 중 다섯 곳은 각각 미션장이 되어 세계인들의 미션 완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미션을 완수해 선물을 얻어 내고야 말겠다는 호기로움. 너도 나도 각국의 의상을 입어보고 악기 체험을 하고, 과테말라의 걱정인형 만들기, 파키스탄 전통놀이 등을 가뿐히 해 내었다. 미션을 제외하고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 암벽타기,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즐길 거리로 넘쳐났던 안산 세계인의 날 축제장.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를 함께 외쳤다. 세계인은 '한편'이라고 우리는 '한가족'이라고.

제16회 세계 난민의 날 '난민어울림 마당'

소통하고 화합하는 감동의 시간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자리한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를 지원해주는 난민지원시설이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바로 이 곳에서 입주난민과 퇴소난민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벌어졌다.
순간의 소중함을, 하루의 감사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특별한 현장 속으로 출발.

글 **박지연** 사진 **나우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래요?

1분에 24명. 이 땅에 태어나 난민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작년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6천만 명을 넘어섰다. 당신이 한가로이 혹은 무상히 흘려 보낸 어떤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난민들은 극한의 1분 1초를 버티고 서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

6월 20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날은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지정된 기념일로 올해 16번째를 맞이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 전역에서 각종 기념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인천 영종도에서 벌어진 '난민어울림 마당', 법무부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김우현 본부장,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대표를 비롯해 많은 내 · 외빈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국 정착 난민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해 난민문제 해결과 세계인의 화합 그리고 평화의 뜻을 기렸다.

오후 두 시, 기념식에 앞서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재정착 난민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한국에 재정착하기를 희망했으며, 태국 캠프에서 지내다가 작년 12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독자적 난민법을 시행하면서 난민에 대해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재정착 난민 제도'가 시범 도입되면서 매년 30명 이내의 미얀마 난민을 재정착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오늘 자리한 재정착 난민 네 가족, 총 22명은 모두가 엷은 미소를 띤 채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으로 취재진을 맞이했다. 오는 9월부터 이들은 정착 예정지, 희망 취업업종을 고려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그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나 하나 쏟아내었다.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범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센터 생활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힘들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감사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행복합니다." 재정착 난민들의 대답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찬

결의가 들렸다.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연신 흘렀다. 자녀들을 안전하고 꾸준하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경찰이 되겠다는 아이들의 다부진 포부에.

재정착 난민 네 가족이 살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시설 탐방이 이어졌다. 2014년 세워진 이 시설은 재정착 난민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사회적응교육과 주거, 급식, 의료 등을 지원하여 난민들이 사회 정착 전 한국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지원센터이다. 햇볕이 잘 드는 창, 쾌적한 분위기. 운동 시설, 빨래 시설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제대로 갖추어진 곳. 자신들의 공간을 흔쾌히 공개를 하는 재정착 난민들의 모습에, 낯선 취재진들을 선뜻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왔다. 곳곳 한국어 연습의 흔적들도 눈에 띄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합니다

오후 세시부터 외국인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가 간단히 치러진 후 센터 입주 난민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 상영이 시작되었다. 'Could you hear our story?' 잔잔한 배경 음악이 흐르고, 재정착 난민들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낸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하얀 스크린 위로 하나, 둘 뿌려졌다. 환히 웃는 재정착 난민들의 밝은 표정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삶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는 난민들이 겪어 온 아픔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출발을 뜨겁게 격려했다.

이어 현근영 외국인지원센터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우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축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들 모두 국제적 이슈인 난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했다. 김우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제인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국격에 걸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난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도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인도적 체류자 등 10명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민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대표는 "전례 없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난민들이 본국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제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고,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 3주년을 축하했다. 이 후 자원봉사자 및 난민 지원에 힘쓴 인사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센터에 거주하는 재정착 난민과 입주 난민들의 기념 무대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춤과 노래 등 끼를 발산하며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이 연출되었다. 아직은 조금 서투른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원색의 화려한 전통 복장으로 치장한 재정착 난민들은 한국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 이 밖에 미얀마 전통 노래, 기타 연주, 아프리카 전통 춤 등 다채로운 무대가 연이어 꾸려졌다. 함께한 모든 참가자들은 한 마음으로 무대를 즐기며 호응했다.

1부 기념식이 끝나고 2부, 야외행사로 체육대회가 치러졌다. "열 개 했어요~!" 제기차기 10개를 성공하면 선물을 준다는 말에 다들 손에 제기를 하나씩 들고 놀이에 열중했다. 난민들은 투호,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족구, 단체줄넘기 등을 즐겼다. 한쪽에서는 셰프의 특급 만찬이 준비되었고 저편에서는 타닥 타닥 바비큐가 구어지는 소리와 냄새가 귀와 코를 기분 좋게 자극했다.

다가올 9월부터 한국사회의 적응도와 적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센터를 떠날 재정착 난민들은 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추억과 따뜻한 격려를 품고 꿋꿋이, 힘차게 한국생활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재정착 난민들이 새로이 센터를 찾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이들을 따뜻이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인간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이치를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느끼길 희망해 본다.

곡선에 깃든 은근하고도 온화한 한국의 멋

The Courteous and Mild Beauty of Korea Shown in Curves

글 박지연

참조 〈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의미, 심영옥 저〉 〈곡선의 미학과 우리의 춤, 김근희 저〉 사진 출처 www.shutterstock.com

북촌한옥마을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오면 꼭 한번 들리는 한국의 명소다. 한옥이 자아내는 부드러운 자태는 마치 능선처럼, 넘실대는 물결처럼 방문객의 마음을 편안히 어루만진다. 처마와 기와가 만들어내는 곡선의 고즈넉한 분위기, 이를 처음 경험한 외국인은 이것이 바로 한국의 멋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억지스럽지 않고도 은근하게 우아하게 존재를 발하는 곡선의 아름다움, 그 안에 실린 한국인의 멋과 혼을 그리고 삶을 함께 둘러보자.

Bukchon Hanok Village is a Korean attraction that is visited by many foreign tourists in Seoul. The smooth figure of Hanok comforts visitors' mind just like a ridge or rolling waves. Foreigners who experience the quiet atmosphere in curves of eaves and roof tiles for the first time highly praise the beauty of Korea. Let's look around the beauty, spirit, and life of Korean people in the beauty of curves showing the natural, courteous, and elegant existence.

대한민국, 곡선의 나라라 불러다오

흔히 동양의 예술에 대해 사람들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를 언급한다. 각 나라는 자연, 역사 등에 따라 예술적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은 형태를, 일본은 색채를, 한국을 선을 택하였다. 한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자연으로 눈을 돌려보자. 평평한 능선이 한없이 굽이지는 광경은 마치 넘실대는 물결을 보는 듯 하다. 한국은 국가 총면적의 75% 이상이 산악지대이지만 대부분이 노년기의 지형이다. 따라서 산봉우리가 뾰족하지 않고 둥글며, 높지 않은 것이다.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또 어떠한가? 산 아래 유려한 곡선을 만들며 흐르는 강줄기는 건강한 생명력과 여유로운 정취를 제공한다.

한국의 자연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지녔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러한 자연을 벗삼아 살아왔으며 이를 보고 배웠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마음 속 깊숙한 곳에는 바로 이 자연의 심성, 곡선의 심성이 자리하고 있다. 편안하고 푸근한 기운을 선사하는 곡선은 절대로 호들갑스럽지 않다, 강렬한 자극이나 노골적인 표현을 피하는 대신 은은하고 은근하게 멋을 드러낼 줄을 안다. 지나친 화려함을 소박함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한국의 예술 정신은 바로 이러한 곡선의 속성에서 유래한다. 자연의 곡선, 그 심상을 그대로 본 따온 한국의 미 의식은 생활 곳곳에 깃들어 있는데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의복에서, 음악에서, 그림에서 그리고 생활에서까지 곡선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Call the Republic of Korea 'A Country of Curves'.

Regarding the Oriental art, generally, people mention thre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Each country shows different artistic elements in accordance with nature and history while China, Japan, and Korea have selected form, color, and line respectively. In everywhere of Korea, flexible and smooth curves can be discovered. First, let's view the nature. The scenery of endlessly bending ridges looks just like surging waves. Even though more than 75% of the gross area in Korea is a mountainous area, mostly it is old topography. Therefore, mountain peaks are round and low. What about flexuous rivers? The river courses flowing in elegant curves down mountains provide healthy vitality and leisurely mood.

Korean nature has the beauty of curves. Korean people have lived with and learnt from such nature. Thus, the deep inside of Korean people's mind, is filled with the character of nature and curves. Such curves presenting comfortable and warm energy never be excessive. Instead of intense stimulation or obvious expression, they know how to show the beauty delicately and mildly. The Korean art spirit that can sublimate excessive fanciness to simplicity is originated from the beauty of curves. The aesthetic sense of Korea, fully copying the image of natural curves can be found in every part of our lives such as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lothes, music, painting, and living.

세계인이 반한 한국의 멋, 굽은줄 곡선

한국 특유의 느슨하고, 온화한 곡선은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금부터 세계인이 극찬하는 한국의 곡선, 그 아름다움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건축이다. 한국 건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디인지를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유연하게 굽어진 한옥의 지붕을 꼽을 것이다. 기와지붕이든, 초가지붕이든 산등성이를 닮은 자연스러운 곡선은 마치 산의 일부라는 착각을 주며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특히 하늘을 향해 솟은 기와 지붕의 처마 곡선은 우아한 기품과 동시에 경쾌한 느낌을 발산한다.

이번에는 의복에서 찾아보자. 본래 한복은 목선에서부터 소매 그리고 발끝까지 곡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 흐른다. 목선을 두른 깃은 둥글게 말아 내려갔으며, 저고리의 소매는 아래로 부드럽게 휘어져 있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멋을 자아낸다. 또한 풍성한 치마의 곡선과 흘러내리는 주름선은 한복의 우아함을 한껏 살린다. 끝으로 발끝까지 내려오면 날렵하고도 앙증맞게 살짝 들어 올려진 버선코의 곡선이 여유로움과 생동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이다. 따라 불러보면 금새 알 수가 있는데 가락의 흐름이 곧게 뻗어나가지 않고 곡선으로 굽이져 흐른다. 한국의 노래나 말 또는 문학은 같은 단어를 되풀이하여, 강세를 굴리고 돌리고 휘어 넘기면서 굴곡지고 진한 정서를 감칠맛 나게, 흥겹게 표현해낸다. 춤은 어떨까? 한국의 춤, 무용의 춤사위야 말로 곡선미의 진수라 할 수 있는데 농악은 물론 강강수월래, 탈춤, 승무, 부채춤 등의 민속춤과 궁중무용에서도 우리는 곡선의 율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채춤에서는 허벅지로부터 다소곳이 굽히며 올려지는 모습이나 버선코를 살며시 내미는 무용수의 모양새가, 반달 모양의 부채와 함께 곡선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낸다. 잔잔한 무늬가 하늘거리듯, 섬세히 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한국의 무용에는 이처럼 동작의 우아함은 물론, 급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자연의 기품이 깃들어 있다.

곡선을 사랑한 민족, 한국인은 이 밖에도 일상에서 독창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있다.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자기와 그릇의 소담스러운 곡선,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우아한 곡선, 세계 10대 경기장으로 꼽히는, 한옥 처마를 모티브로 지어진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국회의사당 역의 유연한 곡선 등 지금도, 한국인의 생활 속에는 굽이진 곡선이 은은하게, 은근히 그 매력을 발하고 있다. 질리지 않는 멋,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자연을 닮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도 천천히, 넉넉히 느껴보시기를.

The Curved Lines, the Beauty of Korea Attracting the World People

Its uniquely loose and mild curves of Korea have been widely recognized for the beauty in the world. From now on, let's view the beauty of Korean curves highly praised by the world people.

First, it is the architecture. When asking what the most impressive part of Korean architecture is, most of the people would point out the flexibly curving roof of Hanok. The natural curves of tiled roof or thatched roof taking after a ridge are harmonized with the surrounding as they look like a part of mountain. Especially, the curves of tiled roof eaves rising toward the sky express the elegant dignity and cheerful feeling as well. What about clothes? Originally, Hanbok has a continued line from a neckline, and sleeve, to tiptoe. The neckband around the neckline rolls down while the sleeves of jeogori are naturally curved for the comfortable and natural beauty. Also, such curves and flowing wrinkles of the ample skirt emphasize the elegance of Hanbok. Lastly, the curves of the toes of socks sharply and adorably rising a bit express the relaxation and vitality.

'Arirang arirang arariyo ~' This is Arirang, the representative folk song of Korea. As you can see by singing the song, its melody winds in curves instead of expanding straight. Korean songs, words, or literature express its curved and deep sensitivity flavorfully and delightfully by rolling, turning, and winding the accents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same words. Then, what about dance? The Korean dance movements are the essence of the beauty of curves. We can easily find dance movement of curves such as Nongak, folk dances like Ganggangsulae, talchum mask dance, Buddhist dance, and fan dance, and even court dance. For example, the look of fan dance slightly rising from a thigh and the look of a dancer slightly showing the toe of a sock fully contain the beauty of curves together with a half-moon fan. Just like a gentle pattern wavers, Korean dance moving in delicate lines contains the elegance and dignity of ample nature.

Korean people who love curves are enjoying the beauty of unique curves in daily life. Still, in daily life of Korean people, there are lots of courteous and mild charms of curves such as pleasantly plump curves of bowls and ceramics frequently used, elegant curves shown in cosmetics container designs, and flexible curves of Sangam World Cup Stadium built with the motif of Hanok eaves, which has been selected as the world top-ten stadium, and the National Assembly Station. Slowly and plentifully feel the beauty of curves taking after nature as you cannot get out of it once you are in.

반 이민정서의 확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유럽사회, 아니 전 세계가 시끄럽다. 브렉시트(Brexit) 투표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터키 이스탄불 공항 테러가 발생한지 불과 며칠 만에 방글라데시 다카 음식점 인질 테러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자주 '이주민' 및 '난민'과 관련된 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테러분자에 대해 이주민이나 난민 등의 '외부인' 또는 이슬람 등의 '외부종교'를 가진 세력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주민 관련 기사의 댓글만 보더라도 반 이민정서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인과 사회는 각각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글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어떠한 틀(frame)로 보고 있을까?

유럽에서는 무슬림과 이민자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브렉시트는 반이민(anti-immigration) 또는 반난민(anti-refugee) 정서의 표출로 해석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호주와 유럽 사회 내에서 이슬람 사원에 폭탄을 투하하거나 이슬람 여성을 차로 치고 뺑소니 하는 등 이슬람 증오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약 테러가 이슬람 종교 또는 이주민 집단에 내재된 속성이라면 무슬림과 이주민 다수가 테러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는 안 해야 한다. 그런데 무슬림과 이주민의 대다수는 테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극소수가 일으킨 범죄 때문에 무슬림과 이주민을 비난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무슬림과 이주민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결부되지 않은 전쟁과 테러(또는 혁명)도 많았으며, 선주민에 의한 폭탄테러나 총격사건은 지금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168명의 사상자와 6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 사건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걸프전 참전으로 훈장까지 받은 티모시 멕베이라는 미국인의 소행이었다. 멕베이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준군사조직인 '민병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그는 재판과정에서 종교집단 '다윗파'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력진압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를 저질렀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문제삼거나 '미국인'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소수집단'의 문제로, 주류사회 구성원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에 대해 어떠한 틀(frame)로 보고 있는가?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동정의 시선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그 관점이 상당히 바뀐 것 같다. 국내에서 소위 반 이민정서는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 등 소수 집단에서만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이주민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서 반 이민정서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댓글의 상당수가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집단으로,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와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 찍고 있다. 이주민이 범죄를 일으키면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이주민의 몸 속에 범죄 DNA가 있는 양 반응한다. 실제 연구결과들을 보면 국내 이주민 범죄율이 선주민 범죄율보다 낮은데도 말이다.

한국 사회 내 반 이민정서 출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 반 이민정서의 출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생활 불만에 대한 표출을 약자인 소수자 집단에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인식되거나 적어도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계층의 사다리도 사라져 가고 있다.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과 갈등의 화살을 정작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 이민정서의 출현에 대해 이주민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현재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주민과 함께 사는 것에 불편함 또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이 큰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도 있다. 수십 년을 다른 공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데 다른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과 한 사회에 함께 사는 것에 어찌 불편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이주민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있다면 그러한 감정을 이주민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공존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불편함이나 거부감은 당장 없애자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적으로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감'으로 발전할 때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다. 이러한 혐오감은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집단 간의 심각한 갈등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천 명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민자 혐오 댓글을 쓴다고 한다. 이들이 도를 넘어서는 이민자 혐오 발언으로 댓글을 온통 도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호주 등 해외 이민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혐오발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감정과 이주민을 대하는 시선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이주민을 볼때 외모나 국적 등의 차이점에 주목하기 보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를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노동현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이 힘들면 이주민도 같이 힘들고, 내가 남에게 존중 받지 못하는 게 힘들면 이주민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 • OIM IOM • MRTC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 · 교육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 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I.S. CALENDA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40여 년간 한센인 돌봐 온 소록도의 두 수녀에게 명예국민증 수여

법무부는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천사 수녀' 오스트리아 국적의 스퇴거 마리안느(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 2명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난 6월 8일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하였다. 두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하였다. 이후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정신 하나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사회봉사 공로로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하였다. 두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어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명예국민증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녀님들이 우리나라를 출 · 입국 및 체류할 경우 등에 있어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民官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법무부에서도 총 6개 과제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한다. 미국 비자를 가지고 사이판을 관광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입국비자를 면제하고, 특수선박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건조에 관련된 고기능 외국인 기술자들이 특정활동 사증(E-7)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직종을 추가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를 17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 시,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20%로 추가 인하한다.

제 8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취임

지난 5월 23일 김우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 8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김우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수원지검, 광주지점, 법무부 법무심의검사, 서울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김우현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철저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고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현장투어 실시

지난 6월 16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자 18명을 대상으로 출입국현장투어를 실시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출입국심사장, 감식과, 입국재심과 등 현장견학을 통해 출입국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투어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신청자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투어는 7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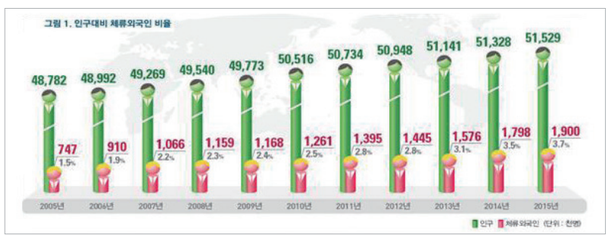
홍콩 입경사무처 실무자급 교환연수단 연수 실시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홍콩 입경사무처 실무자급 직원 6명이 한국에 방문하였다. 지난 2002년 한-홍콩 고위급간 한-홍콩 실무자급 교환연수 실시를 합의 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학습 1주일과 법무연수원 교육 1주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실무자급 연수단은 현장학습 1주일 동안 인천공항 · 서울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IOM 이민정책연구원을 방문하였으며 법무연수원 교육 1주일 동안은 한국과 홍콩 양국 간 출입국관련 업무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하였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환연수 실시를 통해 양국 간 출입국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민정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전체 인구의 3.7%가 외국인, 출입국자 6천 6백만



201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7% (1,899,519명)를 차지하였으며, 출입국자는 6,637만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16. 6. 15. 발간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05년 1.5% (747,467명)에서 '15년 3.7%(1,899,519명)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15년 출입국자는 66,372,908명을 기록, '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국민출국자는 10,372,409명에서 19,580,398명으로 약 1.9배 늘었고, 외국인 입국자는 6,008,527명에서 13,359,701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미국 CBP청장 Kerlikowske 방문

지난 6월 30일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청장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를 방문하여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양국 이민당국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공존하세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하는 정보 매거진 〈공존〉을
앱북(App Book)으로 즐겨보세요~

〈공존〉 앱북
IOS용 버전은
앱스토어에서,
Android용 버전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존하면 시원하다~!

〈공존〉 앱북을 다운받고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시원한 커피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공존〉 봄호 앱북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원한 커피가 생각날 때는 공존하세요~

공존 앱북 다운로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하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눌러 친구가 된다.
www.facebook.com/immigration.kr

둘, "공존앱"을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pc에
다운받고 인증샷을 페이스북 이벤트
댓글로 남긴다.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당첨 확률은 UP~!

ios용 Android용

중국에 있는 왕위 언니에게

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여름이라 중국도 많이 더웠을 텐데 최근 비가 많이 와 조금 시원해졌을 거 같네요.

제가 한국에 온 지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언니 언제 한번 놀러 오나요?

한국에 오면 제가 맛있는 음식 사 줄게요. 6년 동안 먹은 한국 음식이 꽤 많아요.

좋아하는 여러 한국 음식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이에요. 어느 날부터 냉면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냉면이 입에 안 맞아 많이 안 먹었는데

살다 보면 입맛이 계속 변하나 봐요.

냉면은 물냉면과 비빔냉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난 후에 식사 메뉴로 냉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기를 먹으면 좀 느끼한데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으면 고기에 대한 느끼함이 없어지더라고요.

달콤한 냉면 국물을 마실 때 식초를 조금 뿌리면 맛이 더 좋아요.

여름이면 매일 매일 냉면 가게를 가게 되니까,

아예 저희 집 냉장고 안에 냉면을 준비해 놨어요.

먹고 싶을 때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말이에요.

언니, 한국에 올 때 저랑 같이 냉면 한 그릇 먹을까요?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 2016년 6월 25일 왕려가

왕려 씨는 2010년 9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한 후 2015년 2월 졸업했다.
중국과 한국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다수 경험했으며,
현재 한 광고 회사의 중국 마케팅팀 직원으로 일하는 중이다.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정부3.0

국민 생활 맞춤서비스 정부3.0 국민 행복을 키워갑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투명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유능한 정부)
국민 나 자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비스 정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합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